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역대 최대폭 줄었다

12월 말 67만368명... 1년 전보다 0.7% 줄어  
2023년 사상 첫 0.4% 감소한 후 하락폭 확대  
65세 이상 고령인구 18.9%... 전년 비 1.0%p ↑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1년 전보다 5000명 가까이 줄어들며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1.0%포인트(p) 증가하며 20%에 근접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8명으로 전년 대비 0.7%(4884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2023년에

0.4% 줄었던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그 폭은 더 커졌다.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는 제주시 48만8348명, 서귀포시 18만202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3306명), 0.9%(1578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제주시 17.5%, 서귀포시 22.9%)로, 전년 대비 1.0%p 높아졌다. 현재와 같은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도내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5년(62만4395명)과 2016년(64만159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 늘었다. 당시 인구 증가는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인구가 유입하는 계기가 됐던 각종 개발사업과 제주 이주 바람이 거센데 영향이다. 2015년과 2016년 제주 순유입 인구도 각각 1만4257명, 1만4632명으로 역대 두 번째, 첫 번째로 많았다.

그 후 2017년에는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이 2.4%로 둔화했다. 이어 2018년 1.5%, 2019년 0.6%, 2020년

0.5%, 2021년 0.3%로 증가율을 줄이던 인구는 2022년 전년 대비 0.2% 증가한 67만815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67만5252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로 전환됐는데, 순유입이던 인구도 14년 만에 1687명 순유출로 돌아섰다.

지난해도 11월까지 3189명의 인구가 순유출돼 전년 대비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출은 구직자가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데 주택 등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거비용이 커진 점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1월 6일-12일)

## “고품질 시공으로 만족도 제고”



▶(주)삼미기업=오는 7일 창립 59주년을 맞는 (주)삼미기업(대표이사 고윤성·사진)은 종합 광고물 제작과 철물·도장 업체로, 금속 구조물 창조 및 도장공사 전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고윤성 대표는 “특히 업체와 협력해 차선 도색과 미끄럼 방지 시공기술 등을 선보이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며 “고품질 시공과 사업 확장에 주력해 전문성을 한층 더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 722-0507.

## “서민·기업 대상 법률 상담”



▶아라한법무사 사무소=오는 11일 창립 4주년을 맞는 아라한법무사 사무소(대표 고택영·사진)는 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등기업무 처리를 비롯해 민사분쟁 법률 상담, 회사 법률 상담, 성년 후견인 상담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택영 법무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시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친절한 법률 상담과 변함없는 법률 봉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755-777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영훈 지사 등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과 상공인·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제주상공회의소 제공

## “제주 민생경제 회복에 도민 힘 모아나가자”

3일 제주도민 신년인사회... 기관·단체장 등 참석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고물가 우려가 더 커져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새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다짐하는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오전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를 매죽글래드제주 1층 컨벤

션홀에서 열었다. 행사에 앞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 김일환 제주대 총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상공인, 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양문석 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

사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 상환에 소비 부진과 관광객 유입제약으로 이어져 제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으나 제주 경제성장률은 2022년 4.6%에서 2023년 3.0%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국평균 성장률의 2배가 넘고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 지표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또 상장기업 육성과 수도권 유망기업 유치에 위한 입지와 설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주 정착을 돕고,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기조로 전략적 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인구 유출을 유입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확박한 살림에 작년 보험계약대출 역대 최대 작년 10월 말 잔액 71조 돌파... 환급금도 1조3987억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계약대출은 최근 들어 늘어난 추세다.

2022년 말 기준 68조4555억원에서 2023년 말 71조5041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1분기 말 70조1000억원, 2분기 말 70조2000억원으로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3분기를 넘어가면서 1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추세면 연말 기준으로는 2023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이 보험을 포함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하거나 더는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1조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08억원)보다 늘었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153회>

당첨번호	1, 9, 10, 13, 35, 44
2등 보너스숫자	5
1등	6개 숫자 일치
2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등	5개 숫자 일치
4등	4개 숫자 일치
5등	3개 숫자 일치

###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권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점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27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감귤 신제품 분양

##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콤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레조생, 오히리베니(궁천변이지),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경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콘도로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